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斗 南北韓關係

1993. 9.

金圭倫(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全東震(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目 次

I. 問題提起	1
II.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 論議의 背景	3
1. 東北亞 安保狀況의 變化	3
가. 冷戰終熄과 軍事威脅減少	3
나. 美國 安保戰略 變化	4
다. 不確實性 增大	4
라. 軍備競爭 深化	5
2. 多者間 安保協力 必要性 增大	6
III. 「安保協力」의 概念 및 目標	7
1. 概念 및 特性	7
2. 內容 및 目標	9
가. 安保思考 轉換	9
나. 透明性 提高	9
다. 信賴構築 措置	9
라. 紛爭의 平和的 解決	10
마. 國際政治의 民主化	10

IV.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에 대한 關聯國 立場	10
1. 關聯國 政府立場	10
가. 美國	10
나. 日本	12
다. 러시아	13
라. 中國	14
마. 北韓	15
바. 韓國	17
2. 非政府次元의 動向	18
V.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 展望	20
1. 「東北亞協力會議」: 샌디에고 準備會議	20
가. 背景 및 內容	20
나. 參加國의 立場	22
다. 評價	23
2.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 展望	24
가. 促進要因	24
나. 制約要因	26
다. 展望	27

VI.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과 南北韓關係	29
1.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29
2. 北韓 誘導方案	31
VII. 韓國의 考慮事項	32

I. 問題提起

- 냉전종식으로 동북아 安保環境에도 構造的 變化가 일어나고 있음.
 - 한반도를 둘러싼 4강간의 양자관계가 재정립되고 이들간의 군사대립 가능성은 감소되고 있음.
 - 미국 국력의 상대적 약화로 인한 역내 역할감소, 일본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외교적 역할증대,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한 영향력 확대, 러시아의 체제변혁에 따른 정국혼란 등으로 4강간 세력균형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
 - 동북아 안보의 불안지역인 한반도에서도 남북한간의 대화재개로 긴장완화 기운이 조성되고 있음.
- 이와 같은 安保環境의 변화에 따라 지역국간의 군사대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安保상황의 不確實性으로 각국의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음.
 - 4강간의 세력균형 변화, 영토문제 미해결 등 지역불안요인 잔존으로 지역국들의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냉전유산인 분단문제와 이념적 대립 지속, 북한의 핵무기개발 등으로 한반도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동북아지역 軍備競爭 심화 및 냉전이후시대의 새로운 安保威脅에 대비하여 지역국들은 信賴構築과 지역 軍備統制 등 포괄적인 안보협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됨. 지역국들은 우선적으로 분쟁의 事前 管理 및 解消가 바람직하다는

인식아래 多者間 安保協力體의 구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동북아 6개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은 미국의 주도로 1993년 10월 샌디에고에서 「동북아협력회의」(Northeast Asia Cooperation: NEAC)를 갖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7월에 준비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지역국들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는 시기상조이나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을 위한 다자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한국정부는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을 당면 外交目標로 삼고 있는 바, 본 연구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 가능성을 전망하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첫째,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안보대화가 이루어진 배경을 검토하고 多者間 安保協力體의 概念과 目標를 살펴 봄.

- 둘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에 대한 한국을 포함한 關聯國 立場과 動向을 분석·검토함. 특히 각국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샌디에고 준비회의의 결과를 분석함.

- 셋째, 「동북아협력회의」가 대화수준이상의 안보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전망함. 이와 관련 제도화를 위한 促進要因, 障礙要因 및 議題問題 등을 검토함.

- 넷째, 북한의 참여가 안보협력체로의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북한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다섯째, 「동북아협력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同 회의가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발전될 경우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제시함.

II.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 論議의 背景

1. 東北亞 安保狀況의 變化

가. 冷戰終熄과 軍事威脅減少

-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종식은 동북아지역의 安保環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러간의 戰略的 競爭關係는 同伴者 關係로 변화되었고 중·러간의 화해와 협력도 심화되고 있음.
 - 한반도를 둘러싼 4강간 兩者關係가 再定立됨에 따라 동북아에서 강대국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급격히 감소되었음.
- 한국과 중·러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협력 증대에 따라 동북아의 불안지역인 한반도에도 냉전의 대결구조가 와해되고 있으며, 남북대화 재개 등 긴장완화 기운이 조성되고 있음.
- 역내국가들은 경제발전과 정치안정 등 국내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고 국가간 경제협력을 중요시하여 상호협력을 심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는 과거 적대관계의 청산과 역내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美國 安保戰略 變化

- 미국은 아·태지역의 中心勢力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勢力 均衡者 및 安全 保障者의 역할을 계속 견지할 것이나 냉전 이후시대 다원적 질서 속에서 국내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국방비 감축에 따라 역내 안보역할을 조정하고 있음.
- 냉전이후시대 미국의 안보전략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주의에 의한 집단개입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국은 전진배치전략을 견지하면서 해외주둔 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고 迅速對應能力을 강화하는 등 군사 역할을 再調整하고 있음.
 - 미국은 쌍무적 안보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주둔국의 防衛分擔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다. 不確實性 增大

- 동북아지역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새로운 불확실성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는 증대되고 있음. 역내국가들은 미국의 안보역할 감소추세와 러시아의 쇠퇴 등으로 빚어지는 勢力空白에 따라 일·중의 역할 증대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분단문제 및 영토문제의 미해결 등

은 民族主義를 촉발시켜 지역국가들간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국내 불안정도 지역정세의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음.

라. 軍備競爭 深化

- 동북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지역국들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제할 기구나 제도의 不在로 역내국가들의 군비증강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역내국가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이룩한 경제 및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무기 도입과 국내 무기 생산에 많은 군사비를 투입하였음. 특히, 각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 증대로 항해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공군력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음.
 - 중국은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SU-27 전투기 72대 및 SU-31 48대, T-72탱크 등 첨단무기를 대량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裝備 現代化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은 프랑스로부터 미라주기 및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프리깃함을 구입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으로부터 150대 규모의 F-16 전투기를 구입하기로 하였음.
 - 일본도 미국의 지원 및 요구에 따라 제2차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1991~95)을 수립하고 호위함 현대화, 핵무기탑재 가능한 최신예미사일 개발, F-15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북한과 남한은 각각 46억달러, 36억달러를 무기구입에 소비, 아·태지역에서 무기구입면에 있어서 2·3위에 기록되었음. 또한 남·북한의 국방비 증가율은 매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 특히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한 첨단무기 구입능력의 制約 및 이에 따른 相對的 戰力 弱화를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로 극복하려 하고 있음.

2. 多者間 安保協力 必要性 增大

- 냉전이후시대의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抑止戰略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안보사고가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지역국들간에 확산되고 있음.
- 역내국가들은 안보환경의 변화로 지역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兩者關係 위주의 노력보다는 多者間 安保메카니즘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가속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자간 안보기구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지역국간 상호의존 관계 심화와 경제관계가 중시되는 국제환경하에서 안보개념도 군사전략 위주에서 정치·외교·군사·경제·환경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냉전이후시대의 「포괄적 안보」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자간 안보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은 동북아의 경제적 역동성 및 상호의존성 심화 등으로 생성되고 있는 역내 신국체질서 구축과정에서 지역안정의 공고화 및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Ⅲ. 「안보협력」의 概念 및 目標

1. 概念 및 特性¹⁾

- 「안보협력」(Security Cooperation 또는 Cooperative Security)의 概念은,
 - 회원국들간의 정치·군사적 신뢰를 다져 분쟁을 사전에 豫防하고자 하는 것임.
 - 「안보협력」은 抑止보다는 相互安心을 추구하고 쌍무적 안보구조들을 보완 내지 대체하며, 軍事 및 非軍事的 安보 모두를 추구함.
- 「안보협력」의 特性은,
 - 분쟁발생후 사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集團安보(Collective Security)와 구별되며, 특정 敵을 상정하여 구성되는 集團自衛同盟(Collective Defense)과도 구별됨.
 - 「안보협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군사적 위협에 의한 강제보다는 회원국의 자발적 동의에 의존함.

1) Carter Ashton, William Perry, and John Steinbrun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pp. 7~10.

- 議題는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요인 뿐만 아니라 자원, 환경, 마약, 난민 문제 등 비군사적인 위협요인을 포괄함.
- 「安保協力」의 대표적 사례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임.
 - 「安保協力」개념에 기초한 유럽안보협력회의는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각 국가가 동등한 입장과 권리를 갖고 참여하며, 합의도출 등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만장일치의 민주적인 회의형식을 채택하고 있음.
 -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경험에서 보듯이 「安保協力」은 장기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등 성과를 도출하며 구성당사국들간 협의과정에서 수반되는 긴장완화 효과도 중시함.
 - 따라서 「安保協力」은 냉전이후시대의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불안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보개념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安保協力」은 안보문제를 豫防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안보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거나 제재조치를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사태해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음.
 - 유럽안보협력회의는 냉전종식 이후 국가간 무력 충돌이나 갈등의 사전 방지라는 예방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으나 최근 유고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쟁발생시 효율적인 제재조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안보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산하기구로서 독자적 군비통제 및 군축과 위기관리를 협의·시행할 「안보협력포럼」(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 FSC)을 설치하는 등 보다 공고한 지역안보레짐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²⁾

2. 內容 및 目標

가. 安保思考 轉換

- 「安保協力」은 과거 抑止力 위주의 安保思考에서 벗어나 安心 (Reassurance) 증대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에 기초하고 있음.
- 따라서 역내국가들은 주요 관심사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相互間 安心을 증대시키며, 議題도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환경·테러·마약문제 등 非軍事的인 威脅要因도 다룸.

나. 透明性 提高

- 「安保協力」의 주요 목표가 분쟁의 사전 방지에 있으므로 다자간 안보협력체는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의도의 전달 등을 통하여 관련국들의 활동을 공개하고 透明性을 提高함으로써 相互安心 정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다. 信賴構築 措置

- 군비통제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축적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

2) Victor-Yves Ghebali, "The CSCE 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 the opening gambits," *NATO Review*, Vol. 41, no. 3 (June 1993), pp. 23~27.

이 선행되어야 함.

- 동북아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은 국방예산 등 군사자료 교환, 군사훈련 사전 통보 및 참관 등이 포함됨.

라. 紛爭의 平和的 解決

- 「安保協力」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위기관리센터」 또는 「분쟁방지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대화를 통한 분쟁의 사전 방지 및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는데 있음.

마. 國際政治의 民主化

- 「安保協力」은 관련국가가 동등한 권리하에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민주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관련국들의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상충된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共同規範을 창출해 나가는 것임. 이와 같은 과정과 습관을 통해서 지역과 국제정치에서 민주주의의 규범을 擴散시키고 보다 안정된 국제질서를 창출하려는 것임.

IV.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에 대한 關聯國 立場

1. 關聯國 政府立場

가. 美國

-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안보

역할을 저비용으로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자, 기존의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간 안보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은 과거 양자 동맹관계 약화를 우려하여 역내 다자간 안보구상에 반대하여 왔으나, 클린턴 미 실행정부는 同 지역에 대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음.
 - － 클린턴 미 대통령은 도쿄 선진7개국 정상회담(G-7) 및 한국 방문 시 냉전이후시대 미국의 변화된 아·태 안보 및 경제 전략을 총체적으로 포괄한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제시하였음.
 - － 클린턴 대통령은 「신태평양 공동체」의 안보를 위한 4대 우선과제로 1) 미국의 방위공약 계속 실천과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5개국과 미국간의 양자간 안보협력관계 재확인, 2) 핵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억제, 3) 공동안보 도전에 대한 다자간 안보대화, 4) 역내 민주주의 확산 등을 제시하였음.³⁾
-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아·태지역의 새로운 안보문제에 대처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견지하기 위하여 廣域的 次元에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를 활용하고 小地域次元에서는 「동북아협력회의」(Northeast Asia Cooperation)를 추진하고 있음.
 - － 한편, 미국은 역내안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자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역내국가들의 부담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을 모색하고 있음.

3) U.S. President Bill Clinton, "Address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July 10, 1993.

나. 日本

- 일본은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기구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자국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하면서 정치·안보적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음.
 - 일본은 나카야마 외무장관의 ASEAN-PMC 연설(1991. 7),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미국방문시 연설(1992. 7) 및 미야자와 독트린(1993. 1)을 통하여 아·태지역의 안보문제 논의를 위한 다자간 접근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 최근 일본은 1994년 「亞·太 軍關係者 會議」를 준비하는 등 지역안보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
- 일본은 全地域的 多자간 안보협력체로서 자국이 압도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ASEAN-PMC를 선호하며, 小地域的인 다자간 안보협력체로서 자국의 직접적인 이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동북아협력회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은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통하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통제하고 북한 핵문제 등 지역적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음.
- 일본은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통하여 자국의 안보역할 증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와 일본의 안보역할 회피에 대한 서방의 비판이라는 상반된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려 하고 있음.

다. 러시아

-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의 문제에 대하여 集團的 安全保障體制의 수립을 구상하고 있었음.
 -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은 안보위주의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제안하였으나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의 반대로 구체화되지 못하였음.
 -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아시아관 헬싱키회담」(1986. 7), 「전아시아 안보협력회의」(1989. 9), 「전아시아 과정(All-Asian Process)」(1989. 5),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은 「범아시아포럼(Pan-Asian Forum)」(1990. 9)을 제안하였음. 이상의 구상들은 아·태지역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형태로써 안보를 포함한 경제 및 환경,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포괄하는 것임.
- 현재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지역을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집단안보체제 구축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아시아지역 안보와 안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럽안보협력회의」와 유사한 「지역안보공동체」(Regional Security Community) 창설을 추진하고 있음. 이의 준비단계로서 러시아연방은 동북아국가 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음.
 - 엘친대통령은 방한시 국회연설(1992. 11. 19)을 통해 아·태지역내 다자간 대화 메카니즘을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위기관리를 위한 「아·태지역 분쟁방지 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음.
- 러시아가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

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음.

- 러시아연방은 일·중의 군사력 증대를 견제하고 한반도에서 분쟁을 예방하며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역내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동북아지역으로부터 안보위협을 제거하고, 동시에 자국의 影響力 維持를 기대하고 있음.
- 러시아연방은 역내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확대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내경제발전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음.

라. 中國

- 중국은 과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을 중국 包圍戰略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반대하여 왔음. 중국은 우선 양자 관계 개선을 통해 역내 국가간 신뢰증진과 긴장완화를 도모한 후 다자간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음.
- 그러나 중국은 냉전이후시대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줄어든 반면 지역분쟁 위험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지역분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에 대해 점차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관련, 중국은 錢其琛 외교부장의 일본 방문시(1993. 5. 6) 지역문제 논의를 위한 중·일간 안보대화에 합의하고,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중국은 아세안 외무장관회담에서 결의된(1993. 7) 「아세안지역포럼」 창설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클린턴이 제안한 「APEC 지도자회의」 개최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미, 일 등 특정국의 주도하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평화공존 5개원칙(특히 내정 불간섭원칙)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지역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동북아협력회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자국이 주변국들의 안보딜레마로 간주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마. 北韓

- 북한은 분단문제 등 역내 주요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자간 안보협력 구상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왔음. 또한 북한은 이와 같은 다자적 접근노력이 開放壓力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북한은 “「전지역아세안안보협조회의」가 창설된다는 것은 곧 이 지역에서 구라파의 나토와 같은 반공, 반사회주의 침략동맹이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미제가 다국적 관계를 축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지역을 포괄하는 지배주의체제를 창설하

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아세아 사회주의 나라들에 새로운 집단적인 위협이 가해지게 되며 이는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이라고 비판하였음.⁴⁾

- 그러나 1993년 7월 26~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분교에서 개최된 「동북아협력회의」를 위한 준비회의에 김종수 유엔주재 부대사와 동경철 2등 서기관을 파견, 전세계에 유일하게 냉전지역으로 남아있는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고 긴장해소를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북한의 김종수부대사는 한반도 안정과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폐지를 요구하였고 양자동맹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기존의 10만명 군축안을 재차 제안하였음. 이와 같이 북한은 다자간 안보대화를 정치선전 및 외교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음.
- 북한은 자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던 북·중, 북·러 동맹조약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어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양자간 동맹관계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은 다자간 안보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양자동맹관계를 이완시키려 함.
- 북한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를 이용하여 미·일과의 관계개선 및 국제적 고립탈피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선전하려 하고 있음.

4) 「로동신문」, 1993. 3. 13.

바. 韓國

-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과 1992년 2차례에 걸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과 미·일·중·소가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회의」 창설을 주장하였음.
 - 1988년 당시 동북아 정세는 한·소 및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이전이었으므로 역내국가들은 소극적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미국은 태평양지역내 소련 군사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음.
 - 그러나 1992년의 역내 국가간 대화 제안에 대해서는 냉전이후시대의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5월 24일 태평양경제협의회의(PBEC) 총회에서 행한 「太平洋時代와 韓國의 新外交」題下の 기조연설에서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따라 아·태지역 협력강화를 모색할 것이며 역내 다자간 안보대화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한승주외무장관은 1993년 5월 31일 「韓國新外交의 5大基調」題下の 외교협회연설을 통해 “아·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안보대화가 시작됐으며 한국은 이러한 광역적 안보 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을 도모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였음.
 - 그러나 한장관은 단시일내에 이러한 대화가 군비통제나 분쟁해결을 위한 안보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적 유사성이 있는 小地域單位의 東北亞 安保協力體를 추

진할 방침을 밝혔음.⁵⁾

- 클린턴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국 신행정부가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긍정적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주변국들의 협력 유도
- 미·일·중·러 등이 다자간 안보협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주변 강대국들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 미·북한관계 개선과 미·일관계 조정 등 미국의 동북아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비와 일본·중국의 군사적 역할증대 牽制 등 동북아 안보 상황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 다자안보의교를 통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증대

2. 非政府次元의 動向

○ 아·태 및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는 정부당국자들에 의한 공식입장 표명과 함께 민간연구기관 및 비정부기구들에 의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1987년 한, 미, 일, 캐나다, 호주, 아세안 5개국(브르네이 제외) 등 아·태지역 10개국의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Asia-Pacific Round Table은 1992년 11월 서울에서 「아·태지역의 안보협력에 대한 서울 선언」을 발표하고, 비정부차원의 「아·태지역 안보협력 회의」(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5) 「東亞日報」, 1993. 6. 1.

CSCAP)를 설치하여 정부간 안보협력 논의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 미국 카네기 평화연구재단,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는 가칭 「三極會議」를 구성하고 동북아 안보상황을 주제로 한 첫 회의를 1993년 9월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미국 하와이대학 동서문제연구소, 일본의 평화안보연구소, 캐나다의 국제평화연구소는 「북태평양협력안보대화」(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 NPCSD)를 1990년부터 개최하여 각국 정부·비정부 대표의 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 참여국은 미·일·중·러, 남·북한, 캐나다, 몽골,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영국 등이었음.
- 이와 같은 비정부차원의 노력들은 비공식적이며 정례적인 차원의 학술모임 등을 통하여 역내안보 문제 및 위협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에 공헌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실무접촉을 병행함으로써 다자간 안보 협력의 제도화에 기여하고 있음.
- 비정부 및 학계 차원의 협의 노력이 주축이 되고 정부의 후원으로 동북아 6개국간에 추진되고 있는 초보적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노력이 샌디에고 「동북아협력회의」임.

V.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 展望

1. 「東北亞協力會議」: 샌디에고 準備會議

가. 背景 및 內容

(1) 背景

- 클린턴의 訪韓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7월 26~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분교 부설 국제갈등 및 협력연구소(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IGCC)는 美 國 軍 部 의 后 援 아 래 民·官 이 参 与 하 는 형 식 (Track Two) 으 로 「동북아협력회의」를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하였음.
- 同 회의에는 동북아 6개국(미, 일, 중, 러 및 남·북한) 대표가 참석하여 금년 10월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本會議의 議題를 選定하였음.

(2) 合議事項

- 同 회의는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前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함.
 -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安保協力」(Cooperative Security 또는 Security Cooperation), 「共通安保」(Common Security), 「非在來式安保」(Unconventional Security) 등 다양한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概念定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을 促進하는 要因으로는 냉전후 쌍무 관계의 변화, 아시아국가들의 군비증강, 미·중·러 관계 등 강대국 관계의 변화와, 등소평 및 김일성 사후의 중·북한의 국내정치변화에 따른 역내 불안요인이 지적됨.
- 制度보다는 信賴構築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봄.

○ 本會議에서 토의할 議題에 대한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 주제로는 동북아지역 안보현황검토, 그 밖에 군사안보, 경제안보, 정치안보, 환경안보, 심리학적 안보개념 등도 제기됨.
- 信賴構築(CSBM)을 위한 조치로서는 透明性 提高, 小지역차원(subregional)의 군사협력대화, 민간연구소나 대학차원의 백서(White Paper) 작성, Open-Sky 또는 Open-Sea제도, 동북아 6개국 간 hot line 설치, 위기관리센터(Crisis Prevention Center)의 설치, 군사훈련 사전 통보, 마약밀수문제 등이 제기됨.
- 軍事的 信賴構築을 위한 조치로서는 무력불사용선언, 무기확산에 대한 통제, 대량살상무기 통제, 운영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 구조적 군비통제, 비핵지대화 설치문제 등이 제기됨.
- 經濟安保와 관련한 이슈로는 역내 경제관계에 대한 기초연구, 러시아의 경제참여 활성화방안, 동북아와 동남아시아의 교류, 에너지 문제 등이 지적됨.
- 환경문제와 과학기술협력과 관련 Media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Open-Air Region의 설치가 제안됨.
- 6개국 정상회담 개최도 제안됨.

○ 각국 대표단은 의제선정과정에서 「안보협력」 개념에 입각한

만장일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참가 6개국중 어느 일방이 원하지 않는 의제를 10월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국내정치나 인권문제, 영토문제, 대만문제, 합동군사훈련문제, 동북아 차원의 비핵지대문제, 한반도문제, 통일한국의 안보보장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의제에서 제외됨.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0월에 있을 本會議의 議題 및 參加規模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

- 會議 議題

제1일: 각국이 보는 동북아안보환경 및 신뢰구축방안

제2일: 경제와 환경문제 및 23개의 실천강령 선정

- 參加 規模: 각국별로 5명정도씩 참석(총 30명 정도)

나. 參加國의 立場

○ 미국은 다자간 안보협력과 관련하여 ASEAN - PMC와 APEC 등 廣域的 次元의 對話와 더불어 동북아 6개국 중심의 小地域 安保對話를 추진하고 있음. 의제선정과정에서 미국이 민감한 현안을 제외한 것은 6개국의 모임 자체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 회의를 발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임.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나, 중국의 군사력증대 및 북한 핵문제 등 실질적인 현안문제를 다루기를 희망함.

- 중국은 민주화,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안보대화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음.
- 한국은 북한 핵문제 등 주요현안에 대한 안보대화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지지함. 이번 회의개최도 정부의 의지가 미국의 협력을 받게 됨.
- 북한은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궁극적으로 양자간 동맹관계를 대체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였으나, 다자간 협의체의 내정간섭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김종수 주유엔부대사는 군사적 긴장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하고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및 미군철수를 주장함.
 - 김종수 부대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 3단계 회담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핵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를 비난하였음.

다. 評價

- 미국은 機能主義的 接近을 취하면서 漸進的인 制度化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의제선정도 참여국의 완전합의를 존중하고 있어 민감한 안보 현안인 비핵지대화문제, 영토문제, 분단문제 등은 당분간 거론되기 어려울 것임.
- 북한의 계속적인 참여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의 발전에 주요 변수일 것인 바, 북한이 불참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5

개국은 북한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북한이 끝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5개국간 다자간 안보
대화 지속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국제적 압력요인으
로 작용할 것임.

2.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 展望

가. 促進要因

(1) 安保協力에 대한 共感帶 擴散

-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안정을 공
고히 하기 위한 지역안보레짐 구축에 있음. 이와 관련 역내
국가들은 군비증강 추세와 북한 핵문제 등 역내 안보위협
요인에 대처하고 군비축소 및 신뢰구축조치 등을 논의할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
한 이후 주변강대국들과 한국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탈퇴선언
을 번복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협조과정에서 관련국들은 북한의 공격적이며 우발적인 행
동과 기타 지역 분쟁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 1993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7.
23~26)는 1994년 7월 방콕회의부터 기존의 13개 참가국의

에 러시아,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사회주의권 초청국을 포함시켜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도 이 지역안보포럼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밝혔음.

- 이와 같은 아세안중심의 광역적인 안보협력 움직임은 包括的 安保協力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데 기여했으며, 동북아지역에서도 「安保協力」 개념을 바탕으로 한 안보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2) 東北亞 4強의 態度變化

- 미국은 냉전시대와 같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군사력의 전진 배치전략을 고수할 수는 없다는 현실인식하에 미·러의 상대적 안보역할 축소로 초래될 수 있는 勢力空白을 미국의 주도하에 효과적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동북아협력회의」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하여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역내국가들은 양자 위주의 기존 안보협력들의 제약성을 인정하고 다자간 대화 및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동참하고 있음.

(3) 兩者關係의 補完

- 역내국가들은 양자간 안보협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일·러 및 남·북한 등 양자간 긴

장 대립 관계는 다자간 틀속에서 희석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또한 한·미, 미·일 및 한·일 등 양자 관계 강화는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制約要因

(1) 域內國家間 信賴 缺如

- 동북아지역에서는 기초적 신뢰결여 및 수교상태 부재 등 역내 국가간 쌍무관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음.
 - 북한의 對미·일 관계는 核問題 등으로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호전적 자세와 폐쇄적 속성으로 미·일 등은 북한 정치체제에 대하여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 부족으로 북한은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자국에 대한 牽制機能을 위주로 한다고 인식할 수 있어 북한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음.

(2) 冷戰的 思考 殘存

- 냉전적 사고로 안보문제를 인식하여 왔던 역내국가들은 다자간 안보협력 성공여부의 不確實性을 우려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성하는 데에는 소극적임.
 - 역내에서 안보협력과 군비통제 등은 주로 양자관계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역내국가들은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이 기존의 兩者關係를 弱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음.

(3) 北韓의 參與與否 不透明

- 북한은 핵무기 개발, 미사일수출, 대량살상무기 생산·보유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진전이 없는 경우 다자간 대화에 소극적이 될 것이며, 중국이 북한의 참가를 중국참가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할 경우 제도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4) 安保文化의 差異

- 아시아문화권에서는 透明性, 信賴構築 概念 등이 잘 이해되지 않는 개념임. 특히 중국 및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투명성 제고 조치들을 국내기밀 누설로 간주하고 있음.
 - 즉 투명성은 군사안보를 약화시키고, 억지능력을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비통제의 일환인 전력 재배치를 전투력 약화로 간주하고 있음.

다. 展望

- 1993년 10월로 예정된 「동북아협력회의」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비록 協議體 水準이지만 북한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6개국간 초보적인 多者間 安保 協力體가 出帆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동북아협력회의」는 비정부차원의 회의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협력 아래 美國무부가 후원하여 개최된다는 점에서 다른 민간연구기관

주도의 회의 보다는 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활발하게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북아 6개국은 「동북아협력회의」를 기반으로 小地域的인 多者間 安保協力體 구성노력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미, 일, 러, 한국은 지역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제기한 바 있고 「동북아협력회의」의 발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同 구상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동북아협력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에 반하는 조치나 원칙이 제기될 경우 반대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동북아협력회의」에의 참여가 미·일과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참가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同 회의가 다자간 안보협력체로 발전되어 북한의 體制維持에 민감한 의제를 선정·토의할 경우에는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前述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東北亞地域의 多者間 安保協力體는 대화를 위한 틀이 마련되고 회원국들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議題를 비정치·비군사적 의제로부터 정치·군사적의제로 漸進的으로 확대하여 나갈 경우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음.
- 「동북아협력회의」가 역내안보협력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議題擴散 方向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신뢰구축을 위하여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부터 작은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출발시키고자 하는 접근법에 따라 포괄적인 안

보개념에 합당한 자원관리, 교역 등 경제협력, 환경문제 등을 논의함.

- 둘째,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적 무기 등록, 국방백서 발간, 군사 정보 교환, 군사훈련 사전 통보, 위기관리센터 설치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초적인 신뢰구축조치들을 논의함.
- 셋째, 전통적인 안보에 대한 위협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비핵지대화 설치, 독자적인 군비통제 기구설치, 무기 및 미사일수출 통제제도 설립, 군수산업의 민수용 전환 제도 설치 등을 구체적인 의제로 제기할 수 있음.

VI.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과 南北韓關係

1.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 「동북아협력회의」의 初期 대화단계에서는 南北韓問題가 의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동북아협력회의」 참가의 주요목표를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국제적 고립탈피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同 회의의 진전이 남북한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다자간대화의 틀을 남북대화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한·미방위 조약 폐기 및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할 경우 남북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 핵문제는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 자체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한관계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지연하면서 다자간 안보대화를 미·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할 경우, 한국 등 참가국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압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장애가 되고 남북관계 까지 경색시킬 가능성이 있음.

- 中長期的인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은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신뢰구축 기반 조성은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대한 國際的 保障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생산·배치·사용 등을 억제할 수 있는 군비통제 문제 등 남북 양자간에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다자간 협력의 틀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은 다자간 안보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고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임. 결국 北韓의 開放이 자연스럽게 誘導될 것이고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北韓 誘導方案

- 북한이 「동북아협력회의」를 구실로 남북대화를 회피하거나 정권안보를 위하여 「동북아협력회의」 제도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과 역내 국가들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이 북한을 포함한 참여국 전체의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북한에게 설득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한·미, 한·일 공조체제 및 한·중, 한·러 쌍무협조체제를 확립하여 북한에 대한 외교적 설득을 강화하여야 함.
 - 의제는 비정치·비군사적인 영역에서 출발하되 대화를 공식화·정례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 다음 단계에서는 안보대화에서 논의된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영역을 발전된 협력체로 격상시켜 계속 논의·해결하되 그 하부구조에 한반도 비핵화 및 미사일 통제레짐, 북한의 핵 및 미사일체제의 전환레짐 등 보다 직접적인 군비통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를 설치함.
 - 동시에 사찰규정과 절차를 확정짓고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확보 및 기술지원 등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마련함.
- 안보협력체가 성숙된 단계에서는 군비통제 합의와 이에 따른 공정한 검증을 실시하며, 군비통제와 핵확산 및 미사일 수출금지에 있어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방안의 하나로

전환자금 수여 등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함.

VII. 韓國의 考慮事項

- 한국은 다자간 안보대화를 實效性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북한에게 장래 회원국으로서의 역할과 신뢰회복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적응시키는 訓練과 對話의 場으로 활용한다는 데 우선적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임.
- 한국은 「동북아협력회의」가 기존의 안보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격의 기구라는 사실과 한국 안보의 기본축은 양자관계에 있음을 명심하여 우선 한·미 및 한·일 안보협조체제를 견지하고, 한·중 및 한·러간 양자관계 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다자간안보대화가 mini-CSCE형의 안보협력체 수준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미·러·중·일의 행정책이나 미사일 수출정책, 각국의 재래식 무기수출정책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야 함.
- 「동북아협력회의」를 통하여 남북한이 정기적인 접촉을 갖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남북 양자문제와 다자문제를 구분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南北韓 兩者間問題와 多者間 問題 사이의 關係設定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북한의 핵문제가 미해결된 상황에서 다자간 안보대화가 시작될 경우 한국은 다자간대화에서 비정치적 분야의 논의 진행정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함.

- 한국은 북한에게 한국정부의 양해 없이 경제적 혜택이나 미·일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한편, 한·미·일 협조체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한국은 북한이 다자간안보대화를 戰術的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다자간안보협력을 통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와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남북한관계 개선 유도방안을 개발해야 함. 이와 관련, 정부는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 노력을 통일 관련부서간의 유기적 업무협조하에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동북아 안보에 대한 다자간 접근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에 평화질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긍정적인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한국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한반도 분단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간의 당사자간 해결원칙을 존중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강조하여야 함.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資料〉

-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 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統一情勢分析 93-0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3년 9월 일

發行日 1993년 9월 일
